

개항 100년 여수항 '해양복합관광 거점' 거듭난다

내달 1일 비전 선포... 복합해양관광·레저 거점항구 토대 마련 박차

1923년 4월1일 개항한 여수항이 올해 100주년을 맞아 '해양복합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닻을 올린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149억원을 투입해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여수항을 '어항'(漁港)에서 '해양복합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 사업을 벌인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3월 수산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 왔다.

시민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위는 관련 자료수집, 학술대회 개최, 책자 발간, 타임캡슐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65억과 도비 10억, 시비 740억 등 총 2149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4월1일 이순신광장에서는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펼쳐진다.

기념식에서는 여수항의 미래를 기억하는 비전을 선포하며 100년 청사진을 그린다.

20여 개 단기 사업은 이미 마무리했거나 막바지 단계에 들었다. 여수항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타임캡슐' 조형물을 만들고 다큐멘터리 영상물, 기념 촬영 공간 설치, 소셜미디어 홍보, 창작 뮤지컬 제작,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시는 지난해 7월 용역을 통해 '여수 개항 100년사'를 확보하고 함께 2권으로 발간했다.

여수 개항 100년사에는 개항 전후 여수항의 모습과 역할, 도시 공간 변천사, 여수항의 시대별 변화와 운영 성과, 역사적 발자취, 문화예술 행사 등 여수항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여수항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는 '사람 중심의 해양복합관광 거점' 조성을 내걸었다.

여수항 기반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을 확장하고, 여수항을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확장하면서 유람선 관광을 활성화하고 크루즈 선박의 기항지 체류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계획이 핵심이다. 이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 개선과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여수항 항계(港界) 확장, 신항-신복합 진입도로 확충, 국동항-여수 구항 연결도로 개설, 여수항 항만 친수공원 조성 등 모두 9개의 굵직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여수 발전의 중심축이었던 여수항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인력·물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했다. 일본으로 쌀·면화·수산물·광산물 등이 실려 나갔고, 잡화·의류·의약품·기계 등이 주로 들어왔다. 부산을 통해 수입되던 물품들이 바로 여수로 들어오면서 전국의 상인들이 여수로 모여드는 등 일본상품 교역항구로서 큰 역할을 누렸다.

이후 여수는 부산항과 함께 남해안의 주요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고, 광복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시물자와 원소불자 하역장소를 전담하는 항구가 됐다.

여수항은 개항절서법상으로는 1949년에 개항하고, 1967년 1종항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여수 오동도 앞 자산공원을 중심으로 옛 도심 쪽은 구항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은 신항과 신복합으로 구분된다. 무역항의 기능이 축소되고 해양관광의 기능이 두드러지면서 구항은 연안어업 및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엑스포장인 신항은 국제 해상관광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여수항 여객수송 실적은 148만명으로, 20년 전인 1999년(59만명)의 2.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항의 성장 잠재력은 해



1980년대 여수항 모습.

상 경관을 자랑하는 '미항'과 교통 거점이라는 데 있다"며 "이는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만의 독특한 매력 요소를 개발하는 등 복합해양관광·레저 거점항구로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정기명(왼쪽) 시장이 여수항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4월1일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 곳곳에서는 기념사업이 열리고 '해양복합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개발사업이 펼쳐진다. 여수항 전경. <여수시 제공>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 예약 접수

10일부터... 1박 45만~57만원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가든스테이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198만㎡ 정원에서 특별한 하루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하루밤 동안 잘 가꿔진 광활한 정원과 시간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순천에서 기른 최고의 식자재를 활용해 최고의 셰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과 별미도 맛볼 수 있다.

가든스테이는 국가정원 내 생태체험교육장과 동천 제방에 마련되며 35동 80명 수용 규모다.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할 수 있고, 가든스테이 예약 때 박람회 입장권(2일권)을 제공한다.

1박 객실 요금은 평일 45만원부터 주말 57만원 등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가든스테이 순천, 설랑계' 홈페이지(schay.suncheon.go.kr/gardenstay)와 모바일 숙박예약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1일부터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저소득층 피아노 교습비 지원

곡성군 '드림스타트' 이달부터

곡성지역 저소득층 어린이의 배움 기회를 넓히고자 피아노 교습 비용이 이달부터 지원된다. '드림스타트 아동 피아노 과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등의 아동이 대상이다.

지역 4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을 수 있다. 강습비 50%(월 최대 7만원)는 보건복지부 0~12세 이하 아동 지원사업 '드림스타트'가 보조한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하고 상담을 하며 대상 아동을 선정했다.

이번 교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음악 이론과 음악 감상, 피아노 연주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기대했다.

악기 연주는 어린이가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악기를 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해 아동의 희망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광양시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거동 불편 고령자 의료기관 동행도

광양시가 지역민 15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양시 도시보건지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방문 건강관리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 질병은 심뇌혈관질환, 신장 질환, 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이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위한 지역 내 협약 의료기관은 광양서울병원과 광양성심내과의원, 광양조은내과의원, 광양성도안과의원, 박안과의원 등이다.

검사 항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미세단백뇨,

경동맥초음파검사, 안저검사 등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방문 건강관리 구역별 전담인력 해당 근거리 협약의료기관까지 직접 동행할 방침이다.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은 대상자로 등록된 고혈압·당뇨 질환자에게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진과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건강상담, 생활 습관 상담, 증상관리, 복용 약물에 대한 상담, 정기 정밀검진 의료기관 의료 과정 등이 포함된다.

박혜정 광양시 도시보건지소장은 "고혈압, 당뇨병의 정기적 건강검진과 증상관리, 대상자별 건강형태 개선, 합병증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자 모집

고흥군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며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

고흥군은 최근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2기 교육생 41명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를 열었다.

고흥군 도덕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5.76ha 규모 유리온실 3개 동으로 이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토마토와 딸기, 멜론 등을 최적 환경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한 영농시설이다.

설명회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현황과 입주자 지원 자격, 선발 규모, 임대차 기준 등을 안내했다.

고흥군은 지난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수요조사를 벌이고 이달부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4개 팀 12명의 청년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농은 작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환경제어와 영양액 조절, 병충해 방제 등과 관련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계획이다. 초기 영농 진입을 위한 스마트팜 경영 교육도 추진된다.

지난해 스마트팜 창업 보육과정을 수료한 1기 교육생 11명은 같은 해 7월 임대형 팜에 입주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200여 t을 생산, 판매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매출 12억 원을 목표로 작물 재배에 주력하는 등 스마트팜 경영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래 농업의 보육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들의 초기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지역 청년농을 육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3월호

2023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지금은 반려시대

특집

- 당신에게 어떤 반려가 있나요?
- 감성 심는 플랜테리어 인기
- 새봄맞이, 반려식물과 함께

기쁨있는 전통, 활기 넘치는 문화

가보고 싶은 '문불여장성'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⑥
'예학 대가' 김장생 3대 배향 김계회, 김집 부자 함께 모시는 논산 돈암서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삭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⑤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코끼리떼와 어울려 '아이아~' 타잔이 뛰노는 놀이동산

공연 화제
8년 지속 ACC 브런치콘서트, 기대되는 2023 라인업

에향 초대석

'국민 정신건강 주치의' 이시형

"항노화 아닌 순노화가 잘 늙는 법"

클릭, 문화현장 신개념 여행자 걸쳐 그라운드

여행자의 ZIP

해외문화기행 ④
중세의 왕궁, 박물관 섬 '북유럽의 베니스' 스웨덴 스톡홀름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⑤ 인천광역시 아트 공방, 아트 호텔 인천의 얼굴로 기억되는 예술 작품들

스포츠 이야기
목표는 하나 "우승" KIA타이거즈 2023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⑤
거대한 기억의 공간, 베를린 지우지 않고 생생하게 삶 속에 새겨넣은 역사

문화 트렌드
'슬램덩크' 돌풍, 한국팬들도 현실적 성장 스토리 공감